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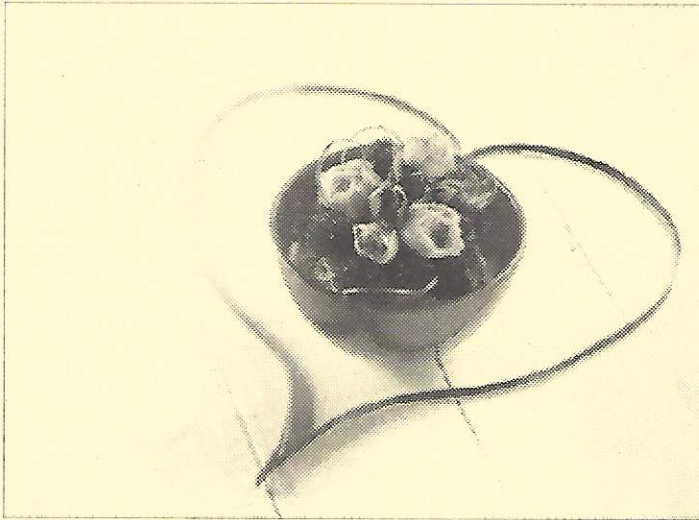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무환 제6주일

제35권 24호(나해) 2015년 5월 10일

[묵상]



< 서로 사랑하여라 >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98세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 강계열 할머니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 화장실 앞에서 노래를 불러준다.
장에 갈 때는 '갈 맞춤' 키플 한복을 입고
손을 꼭 잡은 채 걸어간다.
두 노인은 꽃이 피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더운 날에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낙엽이나 눈이 지천이면 서로 던지고 놀며
알콩달콩 살아간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두 노인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다.
있다면 죽음뿐이다.
죽음은 인간의 숙명,
두 노인도 피해갈 수 없다.
두 노인은 서로 이별을 준비하며,
저 세상마저도 같이 갈 수 있기를,
아니 '저 강을 건너지 마소' 라고 소원한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아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필연 마르첼로 & 임규에 분다 & 정을진
	(생)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 최태훈 아오스딩&유보나 보나, 송명숙 & 이원형 프란치스코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이용식 베드로, 이필주 바오로, 변혜경 올리안나,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현시영 요셉, 최근석 마리아, 이병완 마리아, 김기준 안젤라, 장현숙 발바라,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이두재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생)서성용 베드로, 박홍용 요셉, 임종호, 박현희프란치스코&박진경클라라&박인호요한&박인혜클라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0,25-26.34-35.44-48

화답송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제 2독서 요한1서 (John) 4,7-10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요한15,9-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24	162	166
봉헌	269	255	249
성체	368	299	304
파견	431	어머니은혜	324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선행

제4장 은사의 식별

2. 은사 식별의 기준

7) 이성

이 은사의 식별을 위해 성경,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에 근거를 둔 기준이 제시된다. 곧 공동체의 선익, 사랑, 성령의 열매, 일치, 교도권에 대한 순종, 겸손, 이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체의 선익을 해치거나, 사랑을 거스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또한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해치고, 교도권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면서 교만하고 반(反) 이성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은사가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지 신중하게 식별해야 한다.

오소서, 성령님!

성부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당신 영을 통하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특별히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다. 마침내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또한 성령을 보내시어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시어 거듭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 교회는 이러한 구원 역사를 주도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세세 대대에 찬미와 흠송을 드려야 할 것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다. 교회의 시작에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과 같이 교회의 영적 생명 원리로 작용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그리고 바로 성전인 신자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시고(1코린 3,16; 6,19 참조), 그 안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갈라 4,6; 로마 8,15-16.26 참조).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요한 16,13 참조) 천교와 봉사로 일치시켜 주시며, 교계와 은사의 여러가지 선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열매로 꾸며 주신다(에페 4,11-12; 1코린 12,4; 갈라 5,22 참조). 복음의 힘으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젊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며 자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

<◆계속>

부모의 심정으로

울망줄망한 자식 여럿을 남겨둔 채 세상을 하직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모쪼록 어린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람 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애지중지하면서 자식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보살핌은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될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모의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요한 15,9)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장차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승이 베풀어주신 큰 사랑을 자주 되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누리는 기쁨은 부모의 기쁨이고, 그들이 겪는 고통은 부모의 고통입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고 당부하십니다. 그분은 약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고 부르면서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 제자들 마음에 씨로 뿌려져 그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스승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사랑 부족함을 견뎌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신 다음에도 그분의 제자 사랑은 계속됩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 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견고한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게 도와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해서 그들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환시를 통해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가르치셨습니다.(사도 10,9-16 참조)

그 직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코르넬리우스의 초청을 받아 그 가족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제자가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마져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닮고자 노력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 손희송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우리 생의 화룡점정

포복줄도라 씨도 비웃지 않고 포복절도로 읽습니다.
야밤도주라 말해도 무시하지 않고 야반도주로 알아들읍니다.
이해심이 깊어서가 아니며 배려가 남달라서도 아닙니다.
아픈 데보다 안 아픈 데가 없는 세월을 살다보면
그게 내 말이고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린 화룡점점이라 해도 지적하기 않고 알아들읍니다.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1반 안나회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금자 테레사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Happy Mother's Day!



어머니날을 맞아 모든 어머니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5월 안나회 모임을 임시로 변경합니다.

- 시간 : 5월17일(셋째주일) 10시 미사후
- 문의 : 이귀애 데레사 ☎ (562)256-6562

◆ 제12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5월17일 주일미사 시간 변경: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 10시 미사와 통합
- 체육대회 일시 : 5월17일(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주일미사 해설자 독서자 모집합니다.

김 마누엘라 수녀님께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2015-201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4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6일부터 등록비 인상(\$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내년 한 연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학생들의 인원 수 파악이 필요하오니, 가능하면 꼭 1차 접수 때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첫 영성체반 학부모 모임

- 올해 첫 영성체 대상자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5월 24일 일요일 10시30분

- 장소: 교사실

◆ 5월 요셉회모임안내

매월 셋째 주 정기모임은 없으며 당일 회원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주일학교 썸머캠프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일시: 6월26일 금요일 - 6월 28일 일요일
- 대상: 3학년-12학년 (선착순 30명)
- 참가비: \$60 (no refund)

◆ 오는 5월 24일 일요일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9시30분 학생미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현재 신청서 배부중~5월31일까지 마감 (사무실에 비치)

♡ 혼배미사 ♡

신부 박환희 마리스텔라 & 신랑 김태형 가브리엘

- 부모님 성함 : 박현출 & 이복순
김동일 & 김용희
- 일시 : 5월16일(토) 낮 2시, 백삼위 한인성당
- 주례 : 오창근 베드로 신부
- 리셉션 : 혼배 미사 직후 본당 친교장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10일(주일) *Mother's Day : 친교자리없음
* 주일학교 : 피자 (주일학교 자부들)
- 5월17일(주일) *체육대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전헌금
고천용 권오상 김관기 김교복 김기정 김상규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우용 김정선 김정순 김정엽 김정웅 김정희 김중렬 남명자 노천수 박상준 박씨니 박음전 박정희 방정복 배태임 석순영 송영미 송재훈 신경훈 신순철 안민수 엄영희 오상준 오수인 오일순 우영희 유영균 유희연 이경태 이근모 이복임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재옥 이태옥 진정일 정규숙 정훈모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차병용 최기남 한장환 영희가보라	고천용 권오상 김관기 김교복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우용 김정엽 김정희 남명자 박상준 박씨니 박음전 박정희 방정복 석순영 신경훈 신순철 안민수 오수인 유영균 유희연 이경태 이근모 이복임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정규숙 정훈모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차병용 최기남 한장환 영희가보라
합계: \$5,410	합계 : \$3,040
주일미사 헌금 : \$2,897	2차헌금 : \$705

◆LA 대교구 강주원 가브리엘, 송용주 시메온 신부 사제수품식 및 첫 감사미사

- 사제수품식 : 5월30일(토) 오전 9시 LA주교좌 성당
- 첫감사미사: 31일(주일)오후5시성 그레고리 한인성당
900 S. Bronson Av. LA, CA 90019
- 31일(주일) 성 라파엘성당 12366Rosecrans Av. Norwalk
리셉션 12:00 미사 후 라파엘 홀
- 한인교우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함께 자리하시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미주 가톨릭 방송 봉사자 모집

KCBC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 방송에 관한 여러가지 일들을 위해 봉사해주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 자격:나이제한 없음, 열정적이고 성실한 가톨릭 신자 분.

- 모집분야: 방송을 진행해 주실 MC분들, 웹사이트 관리, 전화서비스, 홍보, 사진, 사무정리

◆ 2015 제 4회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쉽포"신청서

- 날짜: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 5월 24일 일요일
- 대상: 모든 한인 미혼 가톨릭 청년
- 장소: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접수: \$100 (Due 5월 10일) \$120 (after 5월 10일)
- 주관: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UYKC
- 준비물: 목주,세면도구, 수건, 침낭, 여벌 옷 (두꺼운 옷), 성경, Open Mind

◆2015 FIAT 장학금 프로그램 및 봉사인정 프로그램

- 신청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9th~12th)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a@fiat.org (714)702-9830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 시 : 2015년 5월 16일 (셋째 토요일)
- 미 사 : 11시
- 장 소 : 작은 예수회 LA분원(213) 820-6535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 7월 17일(금) ~7월 19일(일)
- 대상 :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Peter Koo (213)605-2817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udia 796-6763	
차 장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539-3377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프란체스카617-113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00-0512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5/15(금) 오전11시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508-2912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213-700-6983 5/8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503-927-0770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회장단 회의	오후1시
--------	------

[길을찾는그대에게]

저는 묵주기도나 9일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매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지향도 많아지고 기도 시간도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에 지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한국 사람들은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도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일은 다른 일들처럼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라는 일보다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그 중 기도 생활에 대한 열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효과가 없는 것은 자신들의 정성이나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다그치며 기도 시간과 양을 늘리고 또 늘립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라는 일에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여기서 약간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던 일과 하던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서의 기도는 일이 아니라 휴식이 됩니다. 작은 컵에 물을 채우고 들고 있으면 처음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들고 있다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기도는 물컵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삶의 문제로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 이런 기도는 정말 좋은 휴식이 됩니다. 어쩌면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멈추고 기다리는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중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잡은 삶의 문제들이 신기하게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던 일이나 공부를 멈추고, 보던 TV를 끄거나 핸드폰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묵주를 드는 자세 자체만으로도 내 삶엔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

부산역과 정로환

경부선의 종점인 부산역은 원래 중앙동에 위치해 있었다. 현재의 초량동으로 이전한 이유는 부산역이 대 화재로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불이 나기 전의 부산역 사진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부산역이 중앙동의 1부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에서 배로 싣고 온 군대와 화물을 철도로 바로 연결하여 서울을 거쳐 신의주까지 가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다. 일본이 철도를 만든 이유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륙침략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만든 것임을 드러내는 사진이다.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은데, 재미있는 예로 정로환을 들 수 있다.

설사에 잘 듣는 '정로환(征露丸)'. 일본의 자기 나름 원대한 꿈은 중국과 러시아를 정복하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러일전쟁을 치르는데, 일본군들이 러시아의 추운 날씨와 나쁜 물 때문에 설사가 심해서 군인들이 연일 죽어나게 되자,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일본왕실 주관으로 공모, 독려해서 만든 약이 바로 정로환이었다. 그래서 러시아(露)를 정복(征)하는 약이라는 뜻으로 설사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의 약명, 征露丸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자기들 야욕을 채우기 위해 만든 산물들을,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어리석음이다. 위안부 문제도,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성공한 이유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도 같은 맥락이다.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고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교육을 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문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때 모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조옥종 신부/로사리오의 집

[기도묵상]

당신이 하느님께 너그러워질수록,
그분도 당신에게 더욱 너그러워지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